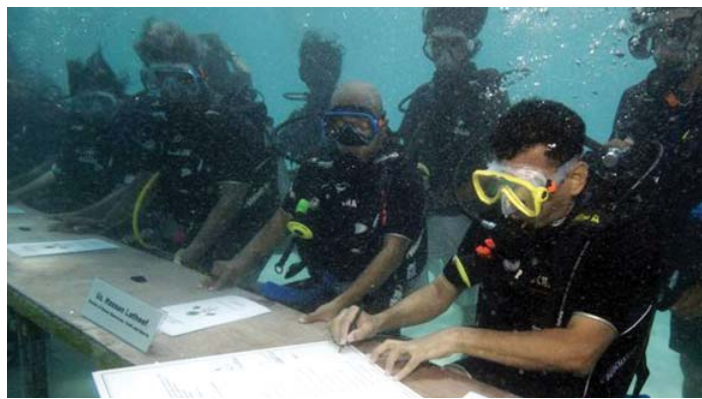


평화로우며 뒤 감춰진 불안감...수몰위기 대안찾기 고심



바다가 이상하다

(8) 해수면 상승 위기 현장-몰디브(下)



지난 2009년 10월 17일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놓인 몰디브의 모하메드 나시드 대통령 등 각료들이 '바닷속 내각회의'를 열고 온실 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인도양의 세계적 휴양지 몰디브(Maldives) 홀루말레(Hulhumale) 섬에 조성된 해변. 육지의 80%가 1m 이하인 다른 지역과 달리, 섬의 해발 고도는 2m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몰디브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선택지가 아닌 백사장'도 인공적으로 조성됐다. /몰디브=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바다에서 모래를 퍼올려 섬을 만든 뒤 돌을 얹고 다시 모래를 쌓아 해변을 조성하고 있는 장면.

지난 4월 찾은 몰디브는 평화롭게 보였다. 속에 감추어진 '불안함'을 꼭꼭 숨겨놓으려는 듯, 주민들의 일상도 다른 도시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범정부위원회(IPCC)가 2100년 해수면은 18~59cm가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하는가 하면,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21세기에 해수면이 최고 88cm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은 상황임에도 위기감이 가득한 분위기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었다.

남극조사과학위원회(SCAR)가 지난 2009년 '남극기후변화와 기후' 보고서를 통한 경고는 더욱 섬뜩하다. 2100년에 해수면 수위가 2년 전 예상보다 2배가 넘는 1.4m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으로만 보면 평균 해발고도가 0.8~1m인 몰디브 섬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사는 수도 말레(Male) 섬은 아침·저녁이면 출·퇴근하는 자전거 행렬로 긴 줄이 서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낮 시간에는 가까운 해수욕장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도 여는 도시와 비슷했다.

하지만 몰디브가 느끼는 위기감을 감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수도 말레섬에서 배로 10분 가량 떨어진 홀루말레(Hulhumale·5km) 섬에서는 몰디브의 절박함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홀루말레 섬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몰디브 공화국이 해결책의 하나로 내놓은 '인공 섬'이다. 육지의 80%가 1m 이하로, 평균 해발 고도가 1.5m인 몰디브 공화국에서 홀루말레 섬의 해발 고도는 2m.

해수면 상승위기에 있어 이 정도 높이면 다른 섬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몰디브 정부의 판단에 따라 내려진 '선택'이었다.

당시 마우문 압둘 게이움 대통령이 "(해수면 상승으로) 이대로 가다간 얼마후 국민 모두가 수몰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나라를 구하려면 이길 뿐"이라며 추진했다.

지난 1997년 첫 아이디어가 나온 뒤 2004년까지 바다 위에 모래를 쌓아 육지로 만드는 개간 사업이 완료됐고 현재는 2020년까지 6만명이 사는 신도시 개발을 목표로 택지 개발이 한창 이뤄지고 있

육지의 80%가 해발 1m 이하 유인도 90곳 해수 범람 피해 해안 침식에 수도도 인공해변 6만명 거주 신도시 조성 한창

다. 벌써 1만6000명의 이주가 이뤄졌고 몰디브 정부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갯 조성된 섬 분위기는 말레 섬과 달리, 쾌적했다. 넓고 잘 정비된 도로, 최근 지어진 깨끗한 아파트 등 신도시 이미지도 갖췄다.

다만, 구역별로 나뉘어 조성되는 탓에 일부 부지는 포코레인과 덤프트럭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흙을 퍼나르거나 옮기는 공사가 한창이었고 주택, 아파트,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정비 작업도 진행되고 있었다.

인공 섬을 둘러싼 바다와 인접한 해변 백사장은 '인공'으로 만들어졌다. 개간한 땅 위에 돌을 얹고 모래를 쌓았다. 택지개발회사담

당자가 '인공'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의견상 완벽했다. "자연 때문에 모래 해변을 잃을 수도 있지만 모래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도 그제야 이해가 됐다.

수도 말레섬도 비슷하다. 끊임없는 연안 침식으로 모래가 사라지면서 자연 해변이 아닌, 인공 해변을 조성해놓고 있다. 관광 리조트를 개발하기 위해 외국 투자자들을 불러들여 새로운 인공 섬을 추가로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정부의 노력과 바람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은 멈추질 않는다. 2010년을 전후해 90개의 유인도에서 해수 범람 피해가 발생했고 유인도의 97%가 침식 피해를 입었다. 87개에 이르는 리조트의 45% 이상이 해안 침식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연안침식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복구가 안되고 침식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형편이고 정부가 침식 방어를 위해 매년 2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건기가 길어지면서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해발고도는 해수면과 비슷해,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조짐은 여전하고 침식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아일랜드 프레지던트 : 나시드의 도전'에서 모하메드 나시드(45) 전 몰디브 대통령의 "아름다운 바다, 황금 해변, 천국과도 같은 섬, 우리 이곳에서 살고 싶다. 사라질 수 없다"는 말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신음하는 몰디브 주민들의 호소이기도 하다. /몰디브=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 기획 시리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환상제주 여름시즌 BIG HIT! 제주여행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특전1. 특식(전복해물전골+전복화+우동구이) 특전2. 제주방문 기념사진 1매

*상품기간 : 2012.03.01 ~ 2012.07.19 *버스패키지 계약금 50,000원

출발일	7/15	7/16~7/17	7/18~7/19	7/20
대인	349,000	339,000	355,000	395,000
소인	159,000	155,000	165,000	175,000

하얏트호텔제주
출발일 7/15~7/18
대인 459,000
소인 159,000

출발일	월/화	수/목/일	금
대인	309,000	319,000	379,000
소인	159,000	169,000	179,000

■ 렌터카 P.K.G (서귀포호텔 / 하얏트호텔 / 사인빌려서리조트)
- 포함사항 : 항공료, 숙박료, 조식 2회, 렌터카 48시간(2인기준) -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 자차보험, 개인경비

제주 자유 여행 / 항공 + 펜션 + 렌터카 48시간 (주중출발) 3일

8인기준 175,000원부터 6인기준 180,000원부터
4인기준 185,000원부터 2인기준 200,000원부터

제주도 골프투어 - 항공 골프 패키지 (월, 화, 수 출발 / 목요일 출발 1인 1만원 추가 / 4인 이상 1조 출발)

크라운or더블렉스 + 스카이힐 [숙소] 네이버드/스카이힐 **₩329,000~** 블랙스톤or세인트포 + 라온 [숙소] 라온골프빌 **₩419,000~**

■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그린피 36홀 + 골프웨어 호텔 1박 + 렌터카 ■ 불포함사항 : 캐디, 커피, 식사, 유류할증료 별도 * 제주 모든 골프장 예약가능합니다. 견적 문의 주십시오!

여행사 파트너 모집 광주/전남 T.062-675-0064 담당: 공지혜 대리

환상제주 여행문의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 이유여행사 374-1881 | 메이투어 070-7093-0555 | 한별투어 956-0045 | 첨단/투어디자인 974-3050 | 무등파크여행사 228-7470 |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